

우리 사회를 따스하게 하는 이들과 함께 하다

아산재단 소식 | 제34회 아산상 시상식



제34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뒷줄 가운데)과 재단 이사, 명예자문위원들이 수상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제34회 아산상 시상식이 11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아산상은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1989년 제정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우리 사회에 봉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11월 시상하고 있다. 대상인 아산상을 비롯해 의료봉사상, 사회봉사상 각 1명, 복지실천상과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각 5명 등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2022년 제34회 아산상 대상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치료하고, 모로코에서 2만 7,000여 명의 결핵 환자 치료와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한 외과 의사 박세업 씨가 수상했다.

의료봉사상은 국립소록도병원 공중보건의로 지원한 이후 27년간 소록도 주민들을 돌본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이, 사회봉사상은 미혼모,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착한목자수녀회가 수상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시상하는 복지실천상에는 독립문평화의집 강경규 사무국장, 대한성공회살림터 김동혁 사무국장,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김태숙 수녀, 성민복지관 남영란 사무국장,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홍유미 센터장이 선정됐다. 봉사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원봉사상은 범물2동산울림봉사회 강민정 씨, 상암월드 구두수선점 김병록 씨,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김시중 씨, 가수 선, 충북해능보육원 후원자협의회 허운 회장이 받았다. 오랜기간 효행과 가족사랑을 실천해 우리 사회에 가정의 의미를 일깨워준 이들을 시상하는 효행·가족상은 김덕순 씨, 박일호 씨, 위계홍 씨, 이계숙 씨, 최이리나 씨에게 주어졌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오신 수상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면서 “재단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글 편집부